



LA 다저스 류현진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이날 호투로 류현진은 시즌 14승(7패)째를 거두며 포스트시즌 3선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14승투 “봤지” 포스트시즌 3선발 ‘눈도장’

SF전 70닝 4피안타 1실점 호투... 방어율 2점대 재진입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이 호투를 펼치며 포스트시즌 3선발로서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류현진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70닝 동안 4피안타 1실점 14승(1자책점)으로 상대를 막아 '삼수'만에 시즌 14승(7패)째를 거뒀다. 류현진은 솔로홈런 한 방을 맞은 것이 유일한 흠이었을 뿐 직구에 커브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스트라이크존을 폭넓게 활용하는 빼어난 제구력을 뽐냈다. 탈삼진 6개를 추가해 시즌 150개를 채웠다. 평균 자책점도 2.97을 기록, 2점대로 재진입하며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호투로 류현진은 오른손 투수 리키 놀라스코와의 포스트시즌 3선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다저스는 1~2선발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 우완 잭 그레인키를 일찌감치 확정했다. 놀라스코(13승 10패)는 지난 7월 이적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두 경기에서 초반 대량 실점을 하며 모두 11자책점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을 목전에 두고 2경기 연속 무너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류현진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던 문제들을 이번 경기에서 한꺼번에 털어내며 시즌 막바지에도 집중력을 보였다. 그동안 '1회 징크스'에 시달렸던 류현진은 이날 5회에 홈런을 내주기 전까지는 무실점으로 경기 초반 안정을 유지했다. 류현진은 자신을 괴롭혔던 천재 타자인 헨터 펜스(상대 전적 11타수 6안타)를 이날 3타수 무안타로 돌려세우는 등 샌프란시스코 중심타선인 3~6번 4명을 11타수 무안타로 꺾고 틀어막았다. /연합뉴스

또 평균 자책점 4.26으로 좋지 않았던 적지 AT&T파크에서도 1실점으로 막으며 원정경기에서도 믿음직한 투구를 펼쳤다. 이날 놀라스코와 대비되는 호투를 펼친 류현진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컨디션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는 류현진을 시작으로 리키 놀라스코-에딘손 볼케스로 이번 샌프란시스코와의 방문 3연전의 선발진을 짜다. 28일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3연전을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나머지 한 명의 선발 투수로 치를 예정이다. 여기서 류현진이 30일 팀의 정규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마지막으로 컨디션을 조절해 포스트시즌에서의 3선발 자리까지 꿰차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류현진은 10월 7일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등판, 미국의 가을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미국프로야구 승패일지

날짜	상대팀	결과
1월 3일	샌프란시스코	0-3
1월 8일	피츠버그	6-2
4월 14일	애리조나*	7-5
4월 15일	콜로라도	6-2
4월 20일	샌프란시스코*	3-4
5월 12일	마이애미	7-1
5월 23일	밀워키*	9-2
5월 29일	LA에인절스	3-0
6월 20일	뉴욕양키스*	4-6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10-2
7월 23일	토론토*	14-5
7월 28일	신시내티	4-1
8월 3일	시카고 컵스*	6-2
8월 9일	세인트루이스*	5-1
8월 14일	뉴욕메츠	4-2
8월 20일	마이애미*	2-6
8월 25일	보스턴*	2-4
8월 31일	샌디에이고	9-2
9월 6일	12일 애리조나	1-4
9월 7일	17일 애리조나*	1-2
9월 25일	샌프란시스코*	2-1

○ 29경기 14승 7패 평균자책점 2.97
 188이닝 탈삼진 150개
 *방문경기

아기호랑이들의 몸값



차명진

2억5000만원

강한울

1억4000만원

KIA 2014년도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 마무리

순천 효천고 투수 차명진이 2억5000만원에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2014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 했다. 1차 연고 지명제 부활과 함께 가장 먼저 KIA의 선택을 받았던 차명진은 계약금 2억5000만원, 연봉 2400만원에 연봉 협상을 끝냈다. 187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감속구가 주목기인 차명진은 슬라이더와 커브 등을 구사하며 최근 대만에서 끝난 제26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로 선발됐다. 2차 지명 1라운드로 뽑힌 원광대 내야수 강한울은 계약금 1억4000만원,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우투좌타인 강한울은

대전 리그 최고의 빠른 발을 자랑하는 전천후 내야수다. 2차지명 2라운드의 박상욱(연세대·투수)은 계약금 1억1000만원, 연봉 24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박상욱은 우투우타로 몸쪽 승부에 강한 '배짱투'가 장점이다. KIA는 또 동강대 투수 김지훈(8000만원), 홍익대 투수 김영광(7000만원), 장충고 내야수 박찬호(7000만원), 인하대 외야수 박준태(6000만원), 울산공고 포수 이진경(4000만원), 진흥고 내야수 박진우(4000만원), 성균관대 내야수 최원준(3000만원), 경남대 외야수 류현철(3000만원)과도 협상을 끝내며 2014 신인선수와의 계약을 마무리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몸은 괜찮는데 마음이 아파요”

① 덕아웃 말말말

▲어려워요=신인 포수 이흥구, 1군에 처음 왔을 때는 잘 몰라서 겁있어 했는데 경기를 할수록 어려운 게 많더라. ▲추석때 딱 걸렸어=선동열 감독, 추석 연휴 기간에 이흥구를 하느라 고생을 했더라. KIA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0일 넥센과의 홈경기 이후 잠실에서 두산과 주말 2연전을 가졌다. 밤 9시에 출발한 선수단은 다음날 오전 3시가 넘어서 숙소 도착했다. ▲수중전 해이지=24일 양상문 해설위원, 비 예보가 있다는 얘기에 비가와도 이제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더라. ▲몸은 괜찮는데 마음이 아파요=연구리 부상에서 복귀한 양현종, 몸은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아, 몸은 괜찮는데 팀 상황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공에 혼이 실리지 않았어요=지난 21일 투수 이원석에게 시즌 첫 피홈런을 내준 심동섭, 더 집중해서 공을 던져야

했다고 아쉬워하며. ▲덕아웃이 많이 비었네=최향남,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취재진이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 ▲눈도장 찍어와 왔냐고 웃었지=선동열 감독, 수술을 앞둔 최희섭이 인사차 감독실을 찾아왔더라.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최희섭은 27일 서울 백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 손상부위 수술을 받는다. 수술후 2~3일 입원을 할 예정이며, 재활 기간 등은 차후 정해진다. ▲군인정신이야=신인 투수 손동욱,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를 묻자. ▲(롯데)징크스 깰어요=24일 롯데전에서 호투한 투수 한승혁, 지난해와 올 시즌 무실점 행진을 하다 롯데에게 대량 실점을 하며 2군으로 내려갔었다. 한승혁은 24일 3이닝 동안 1피안타 1실점 6탈삼진 무실점의 완봉투를 선보였다. ▲포물뿔했어요(Sold out)=한글로 '포물뿔'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소사, 와이프가 선물로 사준 옷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계속되는 기록행진

메츠전 3루타 포함 멀티안타
6출루만 더하면 시즌 300출루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는 추신수(31)가 3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쾌조의 타격감을 뽐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1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전날 3안타에 이어 이날도 한 경기 2개 이상의 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타율을 0.285에서 0.287로 끌어올렸다.

전날 내셔널리그 톱타자 중 사상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100홈런-100볼넷의 대기록을 달성한 추신수는 이날 때린 2안타를 포함, 안타·볼넷·몸에 맞는 공 등으로 올 시즌 총 294번 출루, 시즌 300 출루까지 6번만 남았다. 배리 본즈(1993,1996,1997,1998), 제프 백웰(1996,1997,1999) 등 전설적인 타자들이 이 기록을 썼다. 추신수가 올 시즌 잔여 4경기에서 6번만 더 출루하면 신시내티 소속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추신수는 5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팀이 1-4로 뒤지고 있을 때 이날 첫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중견수 카를 살짜넬을 상대로 홈런을 때렸다. 상대 중견수 후안 라가레스는 타구의 낙하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타구를 빼뜨렸고 공은 담장 아래까지 굴렀다. 라가레스는 공을 주우러 다시 워닝트랙까지 달리면서 시간을 지체했고 추신수는 3루를 밟는 데 성공했다. 시즌 2번째 3루타. 추신수는 후속 보트의 병살타 때 시즌 106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8회 2사 주자 없을 때 마지막 타석에 선 추신수는 2루수 팻 볼로 잡혔다. 신시내티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뉴욕 메츠에 2-4로 패했다. /연합뉴스

임창용 최악투

0.20닝 7타자 상대 2실점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의 볼펜 투수 임창용(37)이 올 시즌 5번째 등판에서 시즌 최다인 2자책점을 기록했다. 임창용은 25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팀이 1-4로 뒤진 5회초 3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0.2이닝 동안 타자 7명을 상대하면서 삼진 2개를 잡았지만 2루타를 포함해 안타 2개, 볼넷 2개 등을 내주고 2실점했다. 임창용의 평균자책점은 2.70에서 6.75로 치솟았다. 17일 밀워키전에서 1실점만 것이 올 시즌 실점의 전부이던 임창용은 이날 제구력을 찾지 못해 자책점이 늘었다. /연합뉴스

평소 직구 위주로 던지던 임창용은 이날 직구(포심, 투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섞어 총 34개의 공을 던졌다. 이 가운데 13개만이 스트라이크존을 향한 정도로 제구력이 좋지 않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90마일)로 평소와 비교 5km정도 느린 편이었다. 임창용은 첫 상대인 앤드루 매카헌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2번째 상대인 말론 버드에게는 유인구가 통하지 않아 연달아 볼 4개를 던지고 출루를 허용했다. 3번째 상대인 개비 산체스에게도 볼넷을 허용, 무사 만루가 됐다. 위기상황에서 제구력을 찾은 임창용은 4번째 상대 러셀 마틴을 삼진으로 잡아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다음 타자인 페드로 알바레스와 플라우르토 점프를 벌인 끝에 2타점 2루타를 맞았다. 1사 1, 2루에서 널 위커를 고의사구로 내보낸 임창용은 컵스의 투수 게릿 풀을 삼진으로 잡고 마운드를 라이언 스윈니에게 넘겼다. /연합뉴스